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중·북부지역 맞춤형 작형 개발 및 단지조성

김성국<sup>1\*</sup>, 정건호<sup>1</sup>, 김민태<sup>1</sup>, 이재은<sup>1</sup>, 전원태<sup>1</sup>, 심강보<sup>1</sup>

<sup>1</sup>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54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 [서론]

중·북부지역의 농가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북부 지역 적응 소득형 작부체계 기술 개발 및 거점단지’를 발굴하여 확대 조성하고자 함

### [재료 및 방법]

중·북부지역의 다양한 2모작 재배 조합을 발굴해 거점단지를 확대하고자 2015년 부터 경기, 강원, 충북 7개 시군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2모작 재배 농가 유형을 조사하였고 기후시대별 작부체계 적합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현장기술 콘텐츠 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상정보, 토양정보, 농업기술정보, 농업경영정보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충북 괴산, 경기 안성, 강원 영월에 지역 맞춤형 거점단지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 [결과 및 고찰]

지역별 맞춤형 실용화 종합기술을 개발·보급해 2013년부터 충북 괴산, 경기 안성, 강원 영월의 3개소에서 중북부지역 작부체계 거점단지를 조성하였다. 괴산은 감자·옥수수·배추·콩 재배조합을 개발해 콩을 대체작물이 아니라 소득작물로 인식하는 변화를 이루어 ‘감자·콩’ 2모작 재배는 112만원으로 단작 대비 2배 이상 소득이 높았다. 안성은 벼 대체 수익형 감자·양파·콩 2모작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확대하였고 2010년 6개에서 현재 18개 유형으로 다양해졌으며, 2모작 재배 면적은 21배(‘10, 10ha→’14, 215ha) 이상 늘었다. 영월은 단작위주의 잡곡 생산에서 봄감자·옥수수·봄배추·콩·녹두·수수·기장·메밀 등 다양한 2모작 작부체계를 도입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잡곡 도정, 혼합 잡곡차(수수, 메밀 등) 및 빵튀기 제품 개발을 하여 계약재배, 직거래 판매장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다양한 자체 유통망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소득 향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현장기술 콘텐츠 D/B 시스템 구축하여 중·북부지역 소득형 작부체계 모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사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14262017)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31-695-0641, E-mail. kim0sk@korea.kr